

성희롱에 대한 이해

성희롱(Sexual Harassment)이라는 용어는 주로 직장에서 남성 상사가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고용과 관련한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(1974년 미 코넬 대학 Lin Farley)되었다.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S대 교수(남)의 조교(여)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서부터 사용되어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[여성발전기본법]에서 “성희롱”이란 용어를 우리나라 법 중 처음으로 도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, 성폭력(Sexual violence)이란 용어보다 더 경미한 성적인 말과 행동도 포함하므로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.

●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

: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상호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보다 일하기 좋은 일터와 사회 건설

● 성희롱의 성립요건

- ▶ 성희롱이 대상자와 가해자 : 모든 사람이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
- ▶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
:학교 및 직장 등 어디서나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 됨
- ▶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(구체적 유형은 아래 참조)

● 성희롱의 판단기준

- ▶ 성희롱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.
- ▶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▶ 양 당사자가 원하고, 상호협의를 거쳐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.
- ▶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.
- ▶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.

● 성희롱의 유형

- ▶ 육체적 행위
 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
 -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
- ▶ 언어적 행위
 -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
 -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 -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 -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
 -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 -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- ▶ 시각적 행위
 - 외설적인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 -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
 -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▶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행위

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- 회식자리 등에서 억지로 손을 잡아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

▶ 기타

-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

◎ 성희롱·성폭력의 실태

- ▶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크고, 미성년자 피해도 증가 추세이다. 전체건수의 70%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다.
- ▶ 성폭력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하다.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로 인한 고통은 평생 계속된다. 객관적으로 볼 때 가벼운 추행이라 할지라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통은 강간에 따르는 고통과 별 차이가 없다.
- ▶ 우리아이는 남자니까,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. 성폭력은 남자와 여자아이, 노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며 또한 남성에게 의해 어린 남자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.

◎ 성희롱 피해자 도와주기

- ▶ 성희롱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.
- ▶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.
- ▶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다면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.
- ▶ 필요한 경우 성희롱 행위의 증인이 되어준다.
- ▶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.



※참고 자료

- 201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신고의무제도(여성가족부,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협의회)
- 2010 성폭력 실태조사(여성가족부, 연구기관-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)

2016년 4월

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